

# 광양시, '착한 소비자 선결제 캠페인' 추진

### 식당·소매점 등 소상공인 업소 먼저 결제하고 재방문 약속 부서별 최대 200만원 선결제 득려...일부 업소 편중 않도록

광양시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시와 민간이 함께하는 '착한 소비자 선(先)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이용하는 식당, 소매점 등 소상공인 업소에 먼저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소비자 운동이다.

이를 위해 시 실과소, 읍면동 등 공직사회부터 2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2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활용해 부서별 최대 200만 원까지 선결제할 수 있도록 독려하되, 3개 내외의 식당, 소매점 등 일부 업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단, 건당 50만 원 미만으로 결제하도록 제한하고, 선결제 금액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6개월 이내 사용을 권고

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기로 했다.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 단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SNS에 캠페인 동참 인증사진 남기기 등을 통해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10% 할인 판매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선결제 참여자 선착순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캠페인 확산을 위해 광양제철소와 광양상공회의소, 산단협의회, 광양경제활성화본부, 상공인단체를 비롯해 각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착한 소비자 선결제 캠페인에 공직사회가 먼저 참여하겠다"며, "기업, 민간단체, 시민 등 광양시의 모든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정적인 도움은 물론 희망을 주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순천사랑상품권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특출 가맹점 확대·모바일상품권 도입 등 사용편의 증진



순천시에서 2018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순천사랑상품권의 발행·소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지급, 발급형태 다양화 등으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규모 역대 최대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을 보면 2018년 33억원, 2019년 70억원이 발행됐던 것이 2020년 말 기준 1,168억원이 발행되어 지난 해 팔복달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2019년 대비 발행액은 약 1,568%가 증가했고, 2020년 판매액은 862억원, 회수된 환전액은 77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36%, 1,3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사용처)도 9,524개소로 2019년 6,117개소 대비 55.7%가 늘어나 시민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당·카페·주유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소비**

업종별 소비패턴 현황 조사결과, 식료품마트·정육점·주유소·의류 등 소매업에서 전체 소비액의 약 70%가 사용되었고, 식당·카페 등 음식점에서 22%가 사용되어 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등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천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사용된 장소는 역전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아랫장, 옷장 등의 전통시장으로 업종별 소비패턴과 유사하게 생활필수품 위주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사용자 연령층면에서는 40대·50대 사용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으로 30대·20대 청년층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할인을 확대·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소비활성화 견인**

2020년 월별 사용금액 분석에 따르면 2월이 14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6월이 1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약 6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과 6월에 소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10% 할인판매정책과 더불어 정부령, 전남·순천형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소비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가맹업종 확대·사용연령층 다양화 등 지속가능한 지역 화폐로 발전**

순천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및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에도 10% 특별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있는 만큼 1천억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12,000개소까지 확대해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을 등록하여 순천사랑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모바일(QR코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사랑상품권은 현재 지류형·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2021년 연중 10%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지류형의 경우는 농협은행, 순천농협, 축협, 원협, 낙협 등 48개 지점에서 구매가능하고, 카드형은 농협카드와 우체국카드가 있으며 농협·우체국 방문 또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발급 이후에는 앱을 통해 상품권 구매(충전)가 가능하고, 가맹점에서도 별도의 은행방문 없이 정산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순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주변의 골목상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보성군, 보해양조와 손잡고 지역 캐릭터 'BS삼총사' 홍보

### 앞새주 20만병 라벨 후면 새겨져...이달 중순부터 유통

앞새주 20만병에 보성 캐릭터 BS삼총사 새겨졌다

보성군은 보해양조가 생산하는 '앞새주' 라벨 후면에 보성군 농·특산물 홍보 캐릭터인 'BS삼총사'를 새겨 홍보에 들어갔다.

BS삼총사 캐릭터가 새겨져 있는 앞새주 20만병이 생산되며 2월 중순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이번 앞새주 라벨 홍보에 새겨진 보성군 'BS삼총사'는 보성의 대표 특산물인 보성녹차, 별교꼬막, 보성키위를 형상화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농가와 상생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만들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

관한 '우리동네 캐립픽'에서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해양조 라벨 홍보를 통해 BS삼총사 캐릭터가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길 바라며, 제언에 응해준 보해양조에도 감사드린다."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온라인 광고 등을 활용해서 보성 대표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 농가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산물인 보성녹차를 활용한 '녹차주' 개발을 보해양조 측에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와 보성군이 함께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상생하면서 의미 있는 기회를 하게 된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하여 제품 후면 라벨 홍보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성=김택순 기자

# 고흥군, 맘(Mom) 편한 산후조리비용 지원한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30~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흥군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여수시, 설 연휴기간 엑스포역에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여수시는 설 연휴기간 고흡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여수엑스포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선제적인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여수엑스포역 임시 선별진료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고흡을 방문하는 귀성객이나 관광

객, 시민들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여수엑스포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를 이용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30여 분 내에 알 수 있어, 확진자 조기 발견·격리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동취재본부

##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